

한국사회에 드리워진 유신의 어둡고 긴 그림자



1970 박정희 모더니즘

권보드래 등 지음

1970년대와 박정희 정권은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과거와 근대, 독재와 민주라는 대립으로만 1970년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고, 이 과정에 1970년대의 향수와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글 꽤 쓰는’ 권보드래(고려대 국문학과 교수·김성환(부산대 인문학연구소 교수)·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전정환(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황병주(역사문제연구소 상임 연구위원)의 ‘1970 박정희 모더니즘’은 1970년대와 박정희 정권을 현재적 맥락에서 재해석했다.

이들은 발언은 단호하다. ‘박정희 국가’는 유신의 통치성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의 개념, 민주국이나



근대화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완성될 수 없다. 박정희를 성공한 근대와 혁명가로 만들고 보조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준 국제적 환경과 박정희 주변의 또 다른 근대주의자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자들은 ‘유신의 모더니즘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책은 유신을 후발성과 국가주의로 동원된 근대화와 반민주의 상징어로 규정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행시킨 말대로 뭔가 가장 ‘비정상’적이다.

세 가지 관점 중 하나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근

대화 산업화는 단지 한국이라는 일국 수준에서 성취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이분법과 ‘박정희 리더십’을 넘어서야 1970년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만큼 살게 된 건 그분 덕택”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오히려 박정권 초기(1961~1963년), 말년(1978~1979년) 경기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체제의 시작과 종말 그리고 성장과 민주주의는 대중의 참여와 동원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한 한 사람의 힘이 아닌 국민 모두의 힘으로 성장을 이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갔다는 점이다.

물론, 저자들은 유신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됐다는 점은 인정한다. 반면 김재규를 의사나 혁명적인 행동을 한 사람으로 추앙하는 것은 경계한다. 오히려 아쉬운 것은 그가 어설프게 유신을 종결시켜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재를 물리칠 역사적 기

회를 잃었고, 또 다른 유신 본당이 권력을 탈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또 1970년을 욕망과 경쟁으로 규정한다. 1977년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7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 했고, 1978년 국회 직원 5명을 뽑는데 2000명 이상이 지원해 40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다.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TV와 영화 등 대중문화를 철저히 통제했고, 이에 따라 영화가 위기를 맞은 시대였다.

박정희 신화의 핵심은 스펙이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구미보통학교, 대구사범학교, 만주국 신경군 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 등 수많은 스펙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키워고 친구보다는 부하를 더 신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정희의 신뢰는 충성과 반역 그리고 배반으로 이어지며 종말을 맞게 됐다.

〈천년의상상·1만9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시와 건축물, 그 속 인간의 삶 들여다보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지음

건축가 유현준은 건축물이란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DNA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그 건축물이 모여있는 도시는 단순한 공간과 건물을 집대성해 놓은 곳이 아니라, 그 안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욕망까지도 투사한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펴냈다. 책은 ‘도시를 보는 열 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이라는 부제처럼 경제, 사회, 기술, 예술, 문화인류적인 관점을 넘나들며 도시와 도시 속 건축물, 그 속 인간의 삶을 들여다 본다.

그가 제시한 15가지 테마는 흥미롭다. 명동과 강남 거리를 비교하며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현대 도시들은 왜 아름답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은 마당과 골목을 빼앗기고 빨개사 사라져 버린 삭막한 도시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제라미 벤딕이 설계한 판

읍 터널을 통해 공간과 권력의 상관 관계를 이야기하며 팬트하우스가 비싼 이유까지 논의를 확장한다.

또 강남과 강북의 비교를 통해 삶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과 단절된 공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찰에 비해 교회는 왜 들어가기 불편한지, 또는 거리의 법칙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들려준다.

그밖에 죽은 아파트의 사회, 우리는 왜 공원이 부족하다고 말할까, 건축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 등 다양한 주제를 만날 수 있다.

오랫동안 신문에 칼럼을 써 온 저자는 다양한 사례들과 쉬운 글쓰기로 건축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풀어낸다. 400여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 관련 사진 자료들도 풍부하게 실어 흥미롭게 읽힌다.

〈을유문화사·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

새로 나온 책

▲**흙속의 보물 지렁이=지렁이 연구에 30년을 매진한 국내 유일의 ‘지렁이박사’가 전수하는 지렁이 활용 방법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렁이를 관찰하고 연구해 온 저자는 ‘지렁이박사 1호’로 불리기도 한다. 저자는 지렁이란 토양동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부터 지렁이의 활동에 따른 효과, 지렁이퇴비장을 만드는 방법과 성공적인 지렁이 이식방법까지 농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들녘·1만3000원〉

▲**화성에서 온 아바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 아이=가족소통 전문가 김대현이 TV 방송에서는 미처 다 알려주지 못한 소통 비법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그의 첫 번째 소통 비법은 평범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즉시 발휘하는 ‘닥치고 듣기’. 333원칙, 사감바 화법, 밥상머리 소통법
〈시그마북스·1만5000원〉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9·11 사태 이후 부시 정부의 전횡과, 정부의 선전과 선동에 무방비로 속아 넘어가 전횡을 가능케 한 미국 국민들에 대한 실망을 담아낸 책.** 저자는 ‘대중의 어리석음’이라는 난제에 도전하기 위해 각종 여론조사 자료를 언급함은 물론, 미국의 건국 시대로 내려가 과거 미국의 정치는 어떠했는지까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권자로서의 국민은 늘 그러지도 않았지만, 늘 옳지도 않았음을 밝혀낸다.
〈인물과사상사·1만4000원〉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세상을 떠돌아 다니며 만든 가짜들과 사기꾼들의 천태만상 진짜 이야기.** 책에서는 마타 하리부터 에버그네일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역사상 가장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기꾼들의 백 가지가 넘는 놀라운 실화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시그마북스·1만5000원〉

▲**가족의 탄생=2010년 본격 미스터리**를 표방한 첫 장편소설 ‘붉은 집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총 7편의 단행본을 출간하며 한국 추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도전적 작가의 장편소설. 데뷔 후 5년동안 쉬 없이 달려온 작가의 전횡이라 할 만한 작품이다. 거액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한 가족의 추악한 민낯과,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는 하지만 남녀라는 타인이 만나 이루어지는 가족의 불안정함을 다루고 있다. 〈시공사·1만3800원〉

▲**동아시아 기억의 장=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 프로젝트**를 동아시아 관점에서 풀어본 책이다. 프랑스의 집합적 기억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던 노라의 ‘기억의 장’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룩셈부르크 등에서 도 같은 기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책에서는 과거 다른 국가들에서 행해진 ‘기억의 장’ 프로젝트처럼 일 국가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과 한반도에 축을 두어 보여 보이는 동아시아를 그려냈다.
〈삼인·3만원〉

어린이 책

▲**재미있다! 한국사 1~3=선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박물관, 유적지 등 전국 곳곳의 역사 현장을 찾아가다**며 배우는 초등 한국사 시리즈. 새롭게 바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역사 영역에 맞춰 초등학교가 꼭 알아야 할 한국사 핵심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면서 우리 역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창비·각 권 1만1000원〉

▲**어린이를 위한 의학과 의사 이야기 100=의학과 의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다루는 책.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장기들의 역할을 통해서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생명체인지 살펴보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병원 기구와 약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고, 잘못 알려진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준다. 〈이케이북·1만4000원〉

▲**누구의 알일까?=팽킨, 약어, 오리, 바다거북, 거미, 문어가 알을 품고 있다.** 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알 속에서 나온 동물들은 아기 때 어떤 모습일까? ‘누구의 알일까?’는 동물들의 생애를 알려 주는 그림책이다. 책을 읽고 나면 알만 보고서도 척척 동물의 종류를 맞힐 수도 있다. 〈주니어RHK·1만3000원〉

▲**헬릭투, 올림포스=그리스 신화의 주요 신들의 이야기.** 신 중의 신 제우스부터 바다와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포세이돈과 하데스, 미녀 여신 3인방 아테나, 헤라, 아프로디테 등 올림포스의 주인공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한다. 이야기로 읽고 만화로 보고 키워드로 정리할 수도 록 구성했다. 〈청어람아이·1만2000원〉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직접)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벽진동 대지 724㎡ 매 4억9천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직)
- 광산구 삼도동 1층주거지역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직접)
- 담양군 월산면 집종지 29,000㎡ 14억5천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30% 할인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할인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로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독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디제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